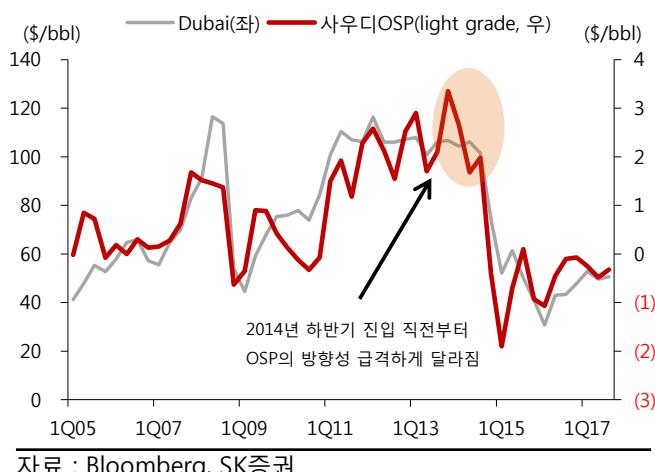




“Mr. Everything”께서 말씀하시길: 유가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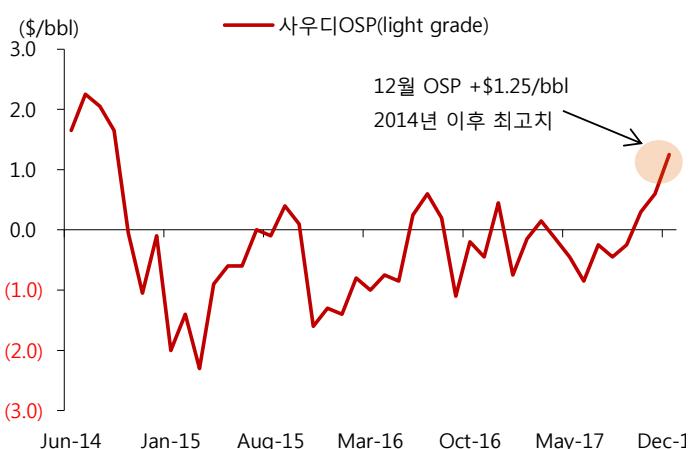
- ▶ 사우디의 실세 Mohammed Bin Salman의 강력한 발표 이후 12월 OSP 3년 래 최대치 발표. 명백한 유가 강세 전략임. Fundamentally 장기 저유가 의견 변함없지만, 아람코 상장 전(18년 상반기) 단기 강세 가능

사우디 OSP는 훌륭한 유가의 단기 선행지표임



- 최근 유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. \$50 중반이야 예전에도 넘나들었으니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지만,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Mohammed Bin Salman이라는 것이 핵심이죠
- Salman 왕조가 들어선 후 시아파 무력침공, 석유장관 교체, 사우디 아람코 상장, 미래형 국부펀드 조성, 부패친족 척결 등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정책을 쏟아냈기에 “Mr. Everything”이란 별명을 얻기도 한 실세 중의 실세인데요(참고. 1985년생)
- 그런 그가 얼마 전(10월 27일) 한 마디를 했습니다. “a vague pledge to do whatever it takes to support oil price” 즉 유가를 지지하기 위해선 모든 하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
- 2018년 하반기 사우디 아람코 상장을 감안한 발언이겠죠

“Mr. Everything”的 유가지지 천명 이후 OSP 급등 발표



- 사우디는 150년 석유 역사에서 거의 1세기 만에 7sisters의 패권을 처절하게 빼앗아 온 존재입니다. 그 나라의 실세가 유가를 지지하겠다고 하니, 아마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겁니다
- “어떻게?”라고 반문 하실 텐데, 그들에게는 OSP가 있습니다
-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사우디가 시장가격 대비 얼마 할증/할인 할 지 공개하는 지표인데, 단기 유가는 꽤 정확하게 선행을 하죠. 2014년 유가 급락의 trigger이기도 했습니다
- 그런데 12월에 발표된 Light grade OSP가 +\$1.25/bbl로서 14년 이후 최고치가 되었습니다. 명백한 의사를 보여준 셈이죠
- SK증권 리서치센터가 지난 4년 간 줄곧 주장한 “10년 장기 저유가” 의견은 변함 없습니다. 다만 단기, 최소 아람코 상장을 앞둔 내년 상반기까진 강세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센티멘트는 그간 고생했던 유가 관련주에 우호적일 겁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 -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